

HEALTH EQUITY

ISSUE PAPER

REPORT

박형철

대한산업보건협회 광주지역본부
보건관리국 원장·예방의학전문의



보건 격차와 노동자 건강

● 건강형평성의 중요성과 지역별 건강불평등 문제

저널을 검색하다 우연히 발견한 사진 한 장이다. 미국 흥부학회의 공공보건/정보 시리즈¹이다. ‘같은 높이의 디딤돌에서 과일 열매를 따기 위해 서 있는 서로 다른 키의 사람’과 ‘서로 다른 신장이지만 모두 동일한 높이에서 수확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받쳐주는 모습’이다. 좌우 대비의 그림은 평등(Equality)과 형평(Equity)을 말하고 있다. 비슷한 듯 하나 두 낱말은 서로 다른 의미이다. 전자는 전부 동일한 케어를 받지만 개인별 높낮이나 처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반면 후자는 모든 사람이 자원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신체적, 심리적·정서적 건강 기회를 갖도록 개인의 상황에 맞춰 부족한 크기만큼 디딤돌이 보충해 준다.

Equality



Equity



인류는 오늘날 두 가지 역학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고대로부터 쪽 이어져 온 ‘감염병’과 20세기 중엽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만성질환’이다. 이에 저항하거나 실패 또는 극복해 나가고 있는 즈음, 우리는 건강형평성 문제에 맞닥뜨리고 있다.

“강북구 사망위험 강남구보다 30% 높다” 오래전 어느 매체에 실린 기사 제목²이다. 한국건강형평성학회에 의뢰, 성 연령 표준화 사망률(2000~2004년)을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사람이 질병·사고 등으로 숨질 가능성은 서초·강남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력과 소득 등 사회경제적 지위 격차에 따른 건강행태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빈부가 지역 간 건강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 건강불평등 실태와 사회적 결정 요인

건강 격차를 보여주는 또 다른 자료가 있다. 소득분위별 수명³이다.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가 기대수명, 건강수명이 최상위이고 점점 더 낮아져 1분위 소득군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 두 집단의 기대수명 차이는 6.5년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소득이 높은 계층이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담배 안 피우고, 술 적게 마시고 조급한 아파도 의료기관을 찾는 등’의 총화로 추정이 가능하다.



질병이 단지 생물학적 결과로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 빈부의 격차에 따른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지난 세기 끝 무렵 보건 분야 정책 논의 시 ‘건강형평성’이라는 생경한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05년 수정·보완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⁴에 건강수명과 함께 ‘건강형평성 확보’가 대등하게 총괄목표에 포함되었다. 이후 노동 분야에서 ‘산업보건 격차’, ‘안전·보건 격차’ 등의 단어⁵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일반 보건 분야처럼 산업보건 분야에서도 건강형평성이나 사회경제적 불평등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고 관련 국내외 연구가 활발해졌다. 신종 감염병 COVID-19 사례를 보자. 작업조건 특히 저임금이나 유급휴가가 없거나 혼잡한 작업환경 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웠고 경제적 이유로 ‘집’에 머물 여유가 없었다. 이로 인해

① Am J Respir Crit Care Med Vol. 203, 2021

② 한겨레신문, 2006-01-15

③ 연합뉴스/보건사회연구원

④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근거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증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적 중장기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1차 계획('02~'05)을 시작으로, 현재는 제5차 계획('21~'30) 즉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 2030)이 수립 시행 중이다.

⑤ 고용노동부. 제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 2020



감염병, 만성질환
극복 과정에서 일반
시민이나 노동자
모두에 최고 수준의
건강을 선물하는
「건강 형평(Health
equity)」을 달성하는
일 또한 산업보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새로운 도전이자
과제이다.

유증상이든 무증상이든 가리지 않고 감염 전파 가능성이 높아
지게 되었다. 감염병 위험 증가나 사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은 가난이나 열악한 생활 여건이었던 것이다⁶⁾.

●●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정신건강

정신건강과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관계 연구가 있다. 결과는 소
득 최하위 그룹과 최상위 그룹간의 정신건강 불평등 격차가 최
대 4배 이상으로 보고⁷⁾되었다. 소득은 물론 고용 부문에서 지
역 간 격차가 나타났다. 소득-학력-직업 분포를 이용한 일자리
질 즉 고용의 질을 분석한 결과 좋은 일자리의 80% 이상이 수
도권에 있었다. 서울 안에서 강북과 강남 사이 일자리 질의 차
이가 크고, 지방 대도시 역시 계층 간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분
석⁸⁾되었다.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노동자들은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한 스트레스, 일주기 리듬장애, 수면부족 등 위험⁹⁾에 노출된
다. 환경 위기나 기후변화가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한다. 고용
관계나 고용의 질, 근로환경, 사회적 자원의 불균등한 분포가
불균형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기업 규모나 산업·업종별 차이,

보건에 관한 CEO의 경영방침이나 노동자의 인식 태도에 따라 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격차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 안전망 확대, 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 실시를 요구한다. 아울러 건강형평성 달성을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에 대한 접근의 형평⁶⁾이 이뤄져야 한다.

건강불평등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한 요소이자 사회적 부정 의이고 최종 결과이다. 하지만 노동자 보건보호의 주무 부서인 고용노동부 누리집 어디에도 건강불평등 용어를 찾기 쉽지 않다. ‘격차’가 몇몇 군데에서 보이긴 하나 보건 문제라기보다 임금 격차, 복지 격차가 주를 이룬다.

●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제언

건강은 인간의 권리이고 사회적, 경제적 또는 환경적 요인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형평은 공정과 정의를 뜻하며 사회의 실질적 책무이다. 형평에 대한 외면은 사회의 불안을 초래한다. 지금과 같은 양극화 시대에 이에 대한 외면은 비용문제나 범죄, 전염병 등으로의 전이효과 때문에 모든 사람의 건강을 위협한다. 어느 사회든 인간자본을 무시할 수 없고 생산성을 담보할 수 없다⁷⁾.

건강은 때로 성, 연령, 인종, 장애 등에 따른 차별과 편견, 고정관념에 의해 악화될 수 있다. 이러한 차별 관행은 제도나

시스템에 내재되어 있어 알아차리지 못한다. 때문에 불평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제거해 나가야 한다. 말하자면 건강을 얻는데 장벽이 있다면 형평성 측면에서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⁸⁾.

형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격차를 피할 수 있어야(Avoidable) 한다.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 형평을 달성하는 것은 일반 시민과 노동자의 건강이나 사회 결정적 요인의 심도 있는 접근, 연구 토대의 근거기반의 정책 특히 건강 불공평 감소 또는 없앴을 목적으로 하는 ‘형평 지향적 보건정책(Equity oriented health policy)’이 주요하다. 불균형 문제의 해소나 완화하기 위한 정책 의제설정, 분석 및 평가와 연계되어야 하고 노동 정책 전반에 형평 의지가 스며들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노동자의 건강권을 실현할 수 있다.

감염병, 만성질환 극복 과정에서 일반 시민이나 노동자 모두에 최고 수준의 건강을 선물하는 ‘건강 형평(Health equity)’을 달성하는 일 또한 산업보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새로운 도전이자 과제이다. 

6 Cynthia A. et al. Addressing Health Equity and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Through Healthy People 2030

7 이은환.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의 건강불평등 연구. 경기연구원

8 이상호. 지역의 일자리 질과 사회경제적 불평등(www.keis.or.kr).

9 Paolo Vineis. Editorials : Emerging issues in public health. Department of Epidemiology and Biostatistics, Imperial College, London, U

10 Emily Q. Ahonen et al. Work, Health, and the Ongoing Pursuit of Health Equity. Int J Environ Res Public Health, 2022nited Kingdom, Frontiers in Public health

11 배상수. 신공중보건. 계축문화사(재인용)

12 https://www.who.int/health-topics/health-equity#tab=tab_1